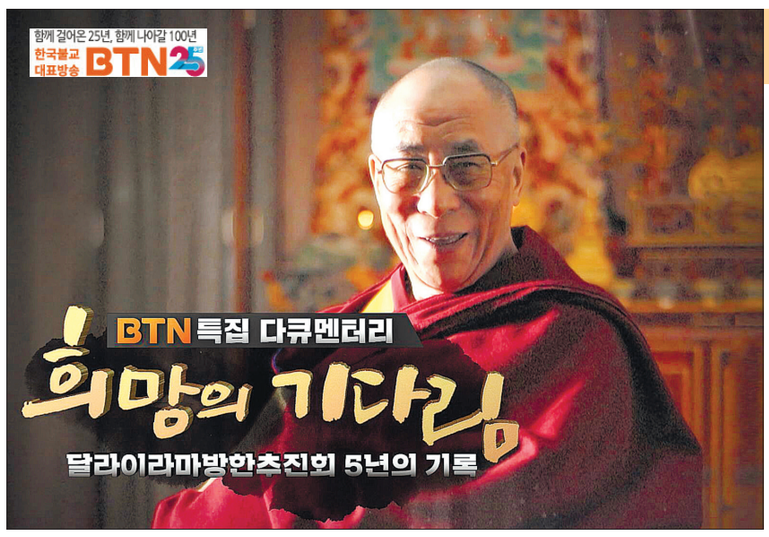
불교 명품 다큐, 설 연휴 안방 찾는다



BTN 특집 다큐멘터리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5년의 기록– 희망의 기다림'.

설 연휴 특집방송 BTN / BBS

BTN

설 연휴 특집프로그램

다큐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5년의 기록– 희망의 기다림'
1월 25일 오후 11시

BBS

설 연휴 특집프로그램

지구촌공생회 활동상 다룬 다큐 '캄보디아에 핀 자비의 꽃'
1월 24일(10:10, 22:00), 26일(14:40), 27일(07:10)



지구촌공생회 활동상 다룬 다큐 '캄보디아에 핀 자비의 꽃'.

BTN은 설 연휴 특집프로그램으로 1월 25일 오후 11시에 BTN 특집 다큐멘터리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5년의 기록- 희망의 기다림(이하 희망의 기다림)' 을 방영한다.

희망의 기다림은 2013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국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달라이라마의 한국 방문을 간절히 염원하며, 특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의 5년을 오롯이 영상으로 소개한다.

세계적인 '생명, 평화 자비' 의 상징인 달라이라마 존자의 한국 방문을 위한 16만 명의 방한지지서명을 받은 달라이라마 방한추진회의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활동과 달라이라마에게 초청장을 전하기 위해 떠난 인도 다람살라 일본 등의 여정들, 추진회 주요 스님들의 인터뷰를 생생하게 담았다. 또한 추진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만 5년의 과정으로 끝이 났지만 여전히 각자의 마음속에 달라이라마의 방한에 대한 염원을 두고 회향한 추진회의 희망의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한다.

이 밖에도 탈종교 천만시대, 전법포교가 점점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시대, 세상 사람들과 더 가깝게 그리고 쉽게 일찍이 문화를 통해 현대인들과 소통하고자 대원을 세운 주석 스님의 살아있는 문화포교 현장 다큐멘터리 △꿈꾸는 수행자-불교, 시대에 눈을 뜨다(1월 24일 15:00 · 월 25일 19:00). 40년이 넘는 세월,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며 부처님 법을 실천해온 석왕사의 동짓날 풍경을 담은 다큐멘터리 △나눔도량 부천 석왕사의 '희망 가득 팥죽 한 그릇' (1월 24일 19:30 · 1월 26일 11:30) 그리고 △봄을 기다리며- 신계사 복원 그 후(1월 24일 23:00) △제51회 휴스턴영화제 대상 수상작-다비 1,2부(1월 26일 23:00 · 1월 26일 23:00) △광우 스님의 소나무 스페셜(1월 25일 22:00 · 1월 26일 22:00) △정목 스님의 나무아래 앉아서 스페셜(1월 26일 16:00~18:00) 등이 설 연휴에 시청자를 찾아간다.

BBS불교방송은 설 연휴 특집프로그램으로 '캄보디아에 핀 자비의 꽃(제작 PD · 홍진호)' 을 방영한다. 방영일은 1월 24일(10:10, 22:00), 26일(14:40), 27일(07:10)이다.

'캄보디아에 핀 자비의 꽃' 은 캄보디아 등 세계 곳곳에서 자비행을 펼치고 있는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지구촌공생회는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해 앙닐 법운화중고등학교와 사마키 영주초등학교의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건립된 앙닐 법운화중고등학교는 지구촌공생회가 캄보디아에 건립한 두 번째 중고등학교로 오랜 후원자의 보시와 정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동참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지난 2003년 지구촌공생회를 설립해 쉼 없이 국제구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사장 월주 스님과 거액을 보시해 학교 건립에 큰 힘을 보탠 후원자들, 그리고 지구촌공생회 직원들이 그동안 펼쳐온 활동과 성과를 조명한다. 또한 앙닐 법운화중고등학교와 사마키 영주초등학교의 준공을 맞아 배움에 목말라하는 캄보디아 아이들의 이야기도 전한다.

아울러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깨달음의 사회화' 등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과 2023년 설립 20주년의 비전 등을 소개한다.

너와 나 그리고 세상이 하나임을 깨달아 종교, 민족, 이념의 경계를 넘는 보편적 인류애를 실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2003년 월주 스님이 창립한 국제개발협력 NGO 지구촌공생회는 창립 후 지금까지 국가 · 민족 · 인종 · 종교를 뛰어넘어 캄보디아 등 18개 국가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지구촌 이웃들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국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펼쳐왔다. 박재완 기자

탑골미술관 '도약의 단초 5'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인작가 4인의 실험적 미술

탑골미술관(관장 유희)은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도약의 단초 5' 를 개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도약의 단초' 는 복지와 미술의 접목으로, 탑골미술관의 신인 작가 지원프로젝트다.

탑골미술관은 2019년 9월 '도약의 단초 시즌 5' 의 공모를 진행했으며, 1차 심사를 통해 4인의 작가를 선발했다. '도약의 단초 5' 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강연수, 김소연, 정성진, 한보연이 참여하는 단체전으로, 4인의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생애 첫 개인전을 열게 된다.

4인의 작가들은 전통적인 형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기법으로 완성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4인의 작가들은 서양화, 동양화, 조각, 설치미술이라는 각기 다른 방식과 소재로 작품을 선보이지만, 작품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관한 생각을 풀어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정성진 作, 재구축된 세계–다비드

강연수 작가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만 같은 오래된 기억의 풍경을 아크릴 물감을 긁어내며 독특한 방식의 회화를 선보인다. 김소연 작가는 촘촘한 실과 다양한 재료를 접목해 시간의 흔적을 표현한 설치미술을 선보인다. 정성진 작가는 3D프린터기를 활용해 우리에게 익숙한 석고상을 재구성한 조각품으로 이상과 현실의 충돌을 재해석했다. 한보연 작가는 민화에서 영감을 받아 동물과 식물 등 자연을 형상화한 환상의 세계를 현대적인 색감의 동양화로 풀어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직접 관람객과 만나며 작품에 담은 생각과 참여하며 느낀 소감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작가와의 대화는 1월 20일 강연수 작가, 1월 22일 한보연 작가, 1월 29일 정성진 작가 순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탑골미술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고판화박물관 중국 국제년화전서 초청

중국 소주 1월 8일부터 10일까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의 세화 소장품이 제2회 중국 소주 국제 목판 년화전에 주빈으로 초청됐다.

중국 소주시와 중국 소주공예 미술학원(미술대학)이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주최하는 년화전이다. 고판화박물관은 소주 공예미술대학 특설 전시실에서 한국 세화판화 10여 점과 세계적인 명품으로 알려진 고판화박물관의 중국 세화 복록수 삼성도 등 2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맞아 열리는 행사로, 중국 목판 세화와 관련이 있는 한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의 고판화를 비롯해 중국 각 지역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명 세화와 중국 세화의 세계적인 소장처 중 하나인 한국의 고판화박물관의 중국 세화를 비롯해 한국 세화 판화가 소개되는 국제적인 행사다.



한선학 관장이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고판화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중국 전역에서 모인 세화박물관 관련가들에게 한국 세화의 우수성과 고판화박물관을 두루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9회째 치러지고 있는 고판화박물관의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 '원주 세계고판화문화제' 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시회와 학술대회, 전통판화시연회로 이루어져 있다.

세화 국제학술대회의 연사로 참여한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은 "제 2회 중국 소주 국제 목판 년화 전시회를 통해 한국의 세화 문화가 이제 변방의 문화가 아니라 세계 속에 빛나는 우수한 문화임이 증명됐으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유물의 세계적인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행사였다"고 행사의 성과를 설명했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2003년 인쇄문화의 꽃인 동아시아 고판화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수집 · 연구 · 보존 · 교육하기 위해 개관했으며 한국, 중국, 일본, 티벳, 몽골, 베트남 등의 고판화 자료 6,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고인쇄 박물관이다. 박재완 기자



